

## 고2 문학 비상

### 1(1). 모란이 피기까지는 - 수능형 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을.

1. 이 작품을 읽고 깨달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주제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주: 앞으로 나는 나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개척해야겠어.
- ② 소영: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어.
- ③ 영아: 나는 이제부터 내가 약속한 일에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지겠어.
- ④ 수지: 게으른 태도를 버리고 꾸준하고 부지런하게 평소 생활에 임해야겠어.
- ⑤ 민우: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겠어.

[2~3]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보기>

김영랑의 시가 당대 현실의 참상과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오히려 영랑이 시종일관 언어 미학에 끈질긴 집념을 가진 것은 당대 일제의 포악한 파시즘에 시인이 대처할 수 있는 예술적 응전 방식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판단된다.

2. <보기>의 관점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고 할 때, 이 시의 창작 동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술은 인간의 본질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드러낼 때 비로소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 ② 예술 작품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진실된 이야기를 드러냈을 때 완벽해지는 것이다.
- ③ 예술가의 창작은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적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싸움이라 할 수 있다.
- ④ 언어의 아름다움은 당대의 사회 모습과 그것을 작가가 작품에 신중히 녹여냈을 때 완성되는 것이다.
- ⑤ 우리의 문학은 민중의 생활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삶을 온전히 드러냈을 때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3. <보기>의 관점에 반대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작품을 선정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비 그치면 /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것다.  
- 이수복, '봄비'
- ② 지금 눈 내리고 /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 이육사, '광야'
- ③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봄 한철 / 걱정을 인내한 / 나의 사람은 지고 있다.  
- 이형기, '낙화'
- ④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 미지의 새 /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 매운 해풍에 /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 김남조, '겨울 바다'
- 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하지 못하고 /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지지 못하여 /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 유치환, '생명의 서'

4. ㉠과 표현기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 ① 구름은 / 보랏빛 색지(色紙) 우에 /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 - 김광균, '데생'
- ②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 처럼 /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 윤동주, '십자가'
- ③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저 푸른 해원을 향해 흐르는 /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 유치환, '깃발'
- ④ 파르라니 깎은 머리 /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 두 볼에 흐르는 빛이 /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조지훈, '승무'
- ⑤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면 벌써 사랑은 아닙니다. / 사랑을 이름지을 만한 말이나 글이 어디 있습니까. - 한용운, '사랑의 존재'

5. 위 시의 주제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동원된 것들이다.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사어의 활용: '비로소' - 봄의 끝남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소망과 믿음을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 ② 여성적 어조: '있을 테요, 우웁내다' 등 - 부드러운 경어체의 사용, 어감을 형성함.
- ③ 감각적 묘사: '아직' - 봄을 기다리는 시적 화자의 자세가 오래고 숙명적임을 감각적 묘사로 암시함.
- ④ 과장법: '모란이 지고 나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 모란이 짐으로써 희망과 기대는 소멸되고, 한해의 나머지는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으로 과장하여 표현함.
- ⑤ 역설법: '찬란한 슬픔의 봄' -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상황을 나타냄.

6. <보기>는 위 시를 구조화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	[B]	[C]
1~2행	3~10행	11~12행

- ① [A]-[B]-[C]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는 '기다림-상실감-기다림'으로 순환한다.
- ② [A]가 [C]에서 변형·반복되는 수미 상관 구조를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갖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B]에서는 하강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B]에서는 음악성을 위해 음을 첨가하거나 축약하고 있다.
- ⑤ [C]의 '찬란한 슬픔의 봄'에서 모란에 대한 기다림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가]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뺨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7. <보기>를 참고했을 때, ㉠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삼백예순 날'은 실제 360일이라는 객관적 수치라기 보다는 슬픔과 상실감이라는 화자가 느끼는 정감의 깊이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로다.  
 오백년(五百年) 왕업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 ② 이화우(梨花雨) 흠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난가.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 ③ 동기로 세 몸 되어 한 몸같이 지내다가 두 아운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느고. 날마다 석양 문외에 한숨 겨워 하노라.
- ④ 삼곡(三曲)은 어드메오 취병(翠屏)에 님 퍼졌다. 녹수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하는 적의 반송(盤松)이 수청풍(受淸風)하니 녀름 경(景)이 업세라
- ⑤ 서검(書劍)을 못 일우고 쓸떡 없쓴 몸이 되야 오십춘광(五十春光)을 하옵 없씨 지내연져 두어라 언의 곳 청산(靑山)이야 날 깰풀이 잇시랴.

8. [가] 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문혀서 사는 이의 /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 저어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 울고 싶어라.
- ② 동방의 하늘도 다 끝나고 /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 때에도 / 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어!
- ③ 아! 그림다. /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 꿈에 나 아득히 보이는가.
- ④ 향단(香丹)아 그넛줄을 밀어라. / 머언 바다로 / 배를 내어 밀듯이, / 향단아.
- ⑤ 그림다 / 말을 할까 / 하니 그리워// 그냥 같까 / 그래도 / 다시 더 한 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9. ㉠과 표현기교가 같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기>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우나 // 봄 한길 / 걱정을  
 인내한 /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 ㉢분분한 낙화… /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 지금은 가  
 야할 때 //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 머지않아 열매  
 맺는 / 가을을 향하여 /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  
 다. <하락>

- 이형기, 『낙화(落花)』에서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0. ㉠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표현은?

- 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②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③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④ 이별은 미(美)의 창조입니다.
- ⑤ 죽지 않은 그대가 이 세상에는 없고나.

11. 다음은 위 시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이다. 작품 자체의 내재적 의미만을 주목한 것은?

- ① 아무리 문학적 표현이라지만 좀 심하지 않아? 어떻게 천지에 모란이 자취도 없어질 수가 있겠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크다는 것을 알겠지만 좀 너무 하잖아.
- ② 시인의 고향집은 아마도 마당에 많은 모란이 피어 있었을거야. 마당 가득히 피었다가 지는 꽃을 보며 아름다운 것은 왜 저리 오래 못 같까 하는 절망을 느꼈을 거야.
- ③ 이 시를 지을 때 시인이 살았던 시대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아. 당대의 지식인들이 실의와 좌절감에서 벗어나길 비는 마음으로 꽃이 피는 봄을 기다린다고 한 것 같아.
- ④ 쉽게 계획하고 또 쉽게 좌절하고 마는 우리들에게 많은 암시를 주는 그런 시 같아. 절망이 온다고 해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시를 읽고 나니 마음이 다 가벼워지네.
- ⑤ 이 시는 참 정교하게 쓰여진 것 같아. 부드러움과 강렬함이 조화된 시어도 있고, 음성 상징도 사용하였고, ‘기다림 - 상실 - 기다림’의 대칭 구조를 앞 뒤 두 행을 통해 나타내고 있으니 말이야.

12. <보기>는 윗글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백과사전】**

- 김영랑: 시인. 1903~1950. 전라남도 강진 출생. 1930년 박용철, 정지용, 이하운 등과 함께 <시문학>을 창간하여, 「동백 앞에 빛나는 마음」 등 여러 편의 시를 발표하였다.
- 작품경향 : 투명한 정서를 조탁한 언어로 표현한 순수시를 주로 썼으며, 방언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도 그의 시의 한 경향이다.
- 「모란이 피기까지는」 : 1935년 김영랑의 첫 시집 『영랑시집』에 실림.

**【국어사전】**

- 모란 : 작약과의 낙엽 활엽 관목. 높이는 2미터 정도이고 가지는 굵고 털이 없으며, 잎은 크고 겹잎이다. 늦봄에 붉고 큰 꽃이 피는데 꽃 빛은 모통 붉으나 개량 품종에 따라 흰색, 붉은 보라 색, 검은 자주색, 누런색, 복숭아빛을 띤 흰색 따위의 여러 가지가 있다. 추위에는 강하나 더위에는 약하며 따뜻한 지방에서는 발육이 불량하다. 인가나 화원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한다.

- ① 이 시의 제목은 시인이 추구하는 것을 표상한 것이다.
- ② 이 시의 어미에서도 김영랑 시의 특성을 찾을 수 있다.
- ③ ‘우웁내다’는 시인의 출생지와 관련이 있다.
- ④ ‘오월’은 시적 대상에 대한 시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표현이다.
- ⑤ ‘찬란한 슬픔의 봄’은 시인의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을 표현한 것이다.

13. 다음은 윗글의 소통 구조와 표현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구절을 시의 앞뒤에 배치시켜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② ‘똑똑’이라는 부사어의 사용하여 화자가 느낀 상실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삼백예순 날’이라는 구체적 수치는 화자의 절망적인 슬픔의 깊이를 더해 주고 있다.
- ④ ‘아직’이라는 부사어를 통해 화자의 기다림이 오래되고 숙명적인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현실의 슬픔을 극복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똑똑 떨어져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뺨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 찬란한 슬픔의 봄을.

14. 밑줄 친 말들 중 ㉠과 ㉡의 쓰임이 다른 것은?

① 강나루 건너서 / 밑밭 길을 //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 길은 외출기 / 남도 삼백 리 // 술 익는 마을마다 / 타는 저녁 놀

- 박목월, <나그네>

②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 춘향이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 천 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 그건 결국 도련님 걸 아니에요?

- 서정주, <춘향유문(春香 遺文)>

③ 철따라 바람이 불고 가는 / 소란한 마을길 위에 // 스스로 퍼는 / 그 폭넓은 그늘……. // 나무는 / 제자리에 선 채로 흘러가는 / 천 년의 강물이다.

- 이형기, <나무>

④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벼도 있다. / 그러는 동안 맘을 팔아버린 벼도 있다. //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 여섯 해가 지나갔다.

- 신석정, <꽃뎀불>

⑤ 눈물 아롱아롱 /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밭으신 길은 /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삼만 리 /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옵신 님의 /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삼만 리.

- 서정주, <귀족도>

15. ㉠에 쓰인 표현 방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① 마침내 어둠까지도 커다란 깃발인 그날 앞두고 / 우리에게 이 어둠이 얼마나 환희(歡喜)입니까?  
- 고은, '기(旗)'

②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흐드는 /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 유치환, '깃발'

③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고은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 아아, 뇌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

④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는 /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 물살 몰아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 서정주, '견우의 노래'

⑤ 한 줄의 시(詩)는 커녕 /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 많은 돈을 벌었고 / 높은 자리에 올라 /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 김광규, '묘비명'

16. <보기>는 윗글에 대한 비평 중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보기> 글과 가장 유사한 접근방식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은?

<보기>

이 시를 존재론의 시로 보고 있는 근거는 첫째 부분(1행~4행)에서 '개화-낙화'라는 꽃의 생명적 원리를 통해 생(生)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었으며, 둘째 부분(5행~8행)에서 하강적·부정적 시어를 통해 생의 비극성에 대한 절망과 탄식을 노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부분(9행~12행)은 다시 생의 양면성에 대한 심화된 인식이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는 '개화-낙화-개화' 즉 '희망-절망-희망'의 끊임없는 생의 변모 과정을 노래한 것이 되며,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이러한 '피어남'은 생성과 소멸, 소멸과 생성의 원리 위에 놓여 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① 아름다움의 상징인 모란이 피어 있을 때는 보람을 느끼다가, 모란이 지고 말았을 때는 허탈감에 빠지는 화자의 태도에서 감상적 유미주의자로서의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② 이 시에 전반적으로 사용된 잘 다듬어진 시어들은 그 당시의 시인들이 지니고 있던 멋스러움이나 풍류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작품에서 '하냥'은 '항상, 언제나' 등과 유사한 뜻을 갖고 있는 전라도 방언으로, '항상'보다는 그 발음이 유연하고 '언제나'보다는 리듬이 훨씬 자연스러우므로 '하냥'과 같은 시어도 음악적 효과를 고려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④ 기다림을 감수하면서도 '모란'에 대한 애착과 집념을 보이는 화자의 모습은 너무 쉽게 결정하고 좌절하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우리 민족 대부분이 고통을 겪었던 일제 강점 하에서, '모란'으로 상징되는 미(美)적 가치만을 노래했다는 것은 시대의 아픔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 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  
 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17. <보기>는 (가)에 대해 나눈 대화이다. 잘못 이해한 것은?

<보기>

㉠ 원혁: 이 시에는 특별히 반복되는 부분이 없어서  
 운율이 느껴지지 않아.  
 ㉡ 동엽: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라는 표현을  
 보면 화자는 '모란'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  
 ㉢ 지선: 그런 면에서 '뚝뚝'이라는 표현은 화자의  
 상실감이 더욱 잘 드러나는 시어인 것 같아.  
 ㉣ 태환: '삼백예순 날'은 객관적인 시간 표현이라기  
 보다는 화자의 감정의 깊이를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어.  
 ㉤ 재윤: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표현에는 슬픔과  
 기대감이라는 복합적인 심정이 들어가 있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과 ㉡이 내포하고 있는 정서를 정리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	상황에 대한 절망적 인식
②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	단절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③	화자의 소망이 다가온 것에 대한 기쁨	소망이 멀어지는 것에 대한 슬픔
④	화자의 숙명적인 기다림	소멸하는 것에 대한 상실의 아픔
⑤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자신감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는 강한 의지

19. 이 시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 꽃이 좋아  
 산에서 /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 김소월, '산유화'

- ① 전통적인 3음보의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  
 ②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감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③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표현하  
 고 있다.  
 ④ 수미 상관의 구성 방식을 통해 순환과 반복의 구조  
 를 표현하고 있다.  
 ⑤ 이 시의 '모란'과 <보기>의 '꽃'은 모두 시적 화자의  
 삶의 보람을 의미한다.

20. <보기>는 ㉠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진술은?

<보기>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이라는 표현은 객관적인 자연 현상의 사실과는 맞지 않는 정서이다. 오월은 결코 무더운 계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자는 모란을 잃어버린 상실감 때문에 오월을 무덥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주관적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

- ㉠ 어머니께서 아끼던 꽃병을 깨 사실 때문에 고민하다가 다 말씀드리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다.
- ㉡ 교통 체증 때문에 약속 시간에 늦은 나를 친구가 짜증도 내지 않고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웠다.
- ㉢ 폭설이 내린 날 골목길을 쓸어 길을 내놓은 이웃집 아저씨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 ㉣ 자동차로 5시간 이상 걸리는 먼 길을 친구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가니 그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다.
- ㉤ 부모님이 여행을 가셔서 혼자 있기 무서울 때 마침 사촌 오빠가 와 줘서 심심하지도 않고 마음이 든든하였다.

## 정답 및 해설

1. <답> ⑤

시적 화자는 ‘모란’이라는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다는 다짐을 노래하고 있다.

2. <답> ③

<보기>에서는 시인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단순하게 회피하는 것이 아닌, 문인으로서의 방법을 사용하여 싸워왔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3. <답> ②

<보기>의 관점과 달리 실제 호전적인 자세를 갖추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저항을 드러냈던 작품은 이육사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4. <답> ①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느냐의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①에는 표현에서는 모순 형용을 찾을 수 없다.

5. <답> ③

‘아직’은 부사어를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자세가 오래고 숙명적임을 드러내고 있으나 감각적 묘사와는 관련이 없다.

6. <답> ⑤

‘찬란한 슬픔의 봄’은 환희와 절망이 교차하는 화자의 심경을 극대화하고 있다. 모란에 대한 기다림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는 ‘나는 아직 기둥리고 있을 테요’에서 드러난다.

7. <답> ②

②의 ‘천 리’는 실제 거리가 아니라 시적 화자의 슬픔의 깊이로 정서적 거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 의미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①의 ‘오백 년’은 고려 왕조의 500년 역사, ③의 ‘세 몸’은 삼 형제, ④의 ‘삼곡’은 고산의 구곡(九曲) 중 삼곡(三曲)인 취병, ⑤의 ‘오십 춘광’은 시적 화자의 지난 50년 세월을 의미한다.

8. <답> ①

시적 화자에게 모란과 봄은 인생의 보람 그 자체이다. [가]에서는 모란이 짐으로 인해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끼고 상실의 슬픈 정서를 보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정서가 드러난 것은 사라지는 아름다움에서 느끼는 비애를 노래한 ①이다. ②는 꽃의 강인한 생명

력을, ③은 내 마음을 알아줄 임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노래하고 있다. ④는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⑤는 이별의 순간에 느끼는 망설임과 미련이 드러나 있다.

9. <답> ④

‘찬란한 슬픔의 봄’은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도 표면적으로 모순된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역설법으로 볼 수 있다.

10. <답> ②

11. <답> ⑤

12. <답> ⑤

김영랑 시인은 순수한 정서를 시어를 조탁하여서 순수시를 주로 썼기 때문에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해석하기는 어렵다.

13. <답> ⑤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이라는 표현은 모란이 저버린 후의 시간은 슬픔에 빠져있는 시간일 뿐 삶의 보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답> ④

㉠의 ‘삼백예순 날’은 화자의 정감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④의 ‘서른여섯 해’는 일제 강점기(1910~1945년)의 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화자의 정서를 나타낸 표현과는 관련이 없다.

15. <답> ⑤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에서 ‘훌륭한’은 의도와 반대로 표현한 반어법이다.

16. <답> ①

<보기>는 이 시를 존재론적 관점에서 생명의 생성과 소멸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①은 모란이 피었을 때(생성) 모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보람을 느끼지만, 모란이 지고 난 후(소멸) 허탈감에 빠지는 화자의 태도를 통해 작가의 감상적 유태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밝히고 있다.

17. <답> ①

(가)에는 ‘-있을 테요’, ‘-잠길 테요’ 라는 동일한 종결어미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의 ‘찬란한 슬픔의 봄’은 일종의 역설적 표현으로 ‘모란이 다시 찬란하게 피기를 기다리

는 기대감과 모란이 질 때의 슬픔'을 복합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다.

18. <답> ④

㉠을 통해 기다림이 화자에게는 숙명적이며,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준다. ㉡은 모란이 무정히 사라져 버리는 정경을 소리로 나타낸 것이다.

19. <답> ④

이 시는 수미 상관을 통해 '기다림 - 상실감 - 기다림'이라는 순환 구조를 보이는데, <보기> 역시 수미 상관의 구조를 통해 '생성 - 소멸 - 생성'이라는 자연의 순환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20. <답> ④

㉠은 5월의 자연은 무덥지 않은 것이 객관적 사실이지만 화자가 모란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무덥다고 주관적으로 느낀 것이다. ④ 자동차로 5시간이나 걸리는 길은 객관적으로 먼 거리이지만 친구와 즐겁게 보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가깝게 느낀 것이다.

③ 폭설이 내린 날씨가 훈훈하게 느껴졌다고 하면 <보기>와 유사한 상황이나 아저씨의 마음이 따뜻하다고 했으므로 거리가 멀다.